

# 일본 고대사 요약

## 중앙집권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

20200422 이수빈

일본은 조몬시대가 오랫동안 유지되다가 기원전 3세기에 들어서서야 농경과 청동기, 철기가 동시에 등장했던 야요이시대에 접어든다. 농경과 함께 야요이식 토기도 발견되었으며, 청동기와 철기가 등장하면서 일본도 계급사회가 시작되었다. 3세기에 일본은 30여 개의 소국으로 나누어졌고, 그 중 야마타이국이 가장 우세였다. 야마타이국의 히미코여왕은 중국의 위나라에게 ‘친위왜왕’ 칭호와 금인자수 등을 하사받았고, 이는 야마타이국이 위나라의 외신 자격으로 책봉체제 아래에 들어오게 하는 징표였다. 이는 야마타이국 왕권의 위상을 높여주었다.

이후 펼쳐진 고분 시대는 크게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고분의 특징을 기준으로 나눈 것이다. 전방후원분의 조영은 호족들의 위세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기기도 했는데, 4세기 전기에 전방후원분이 출현했으며, 5세기 중기에는 고분의 규모가 가장 컸다. 6~7세기 후기에는 전방후원분이 소멸되어 갔다. 여기서 중기까지는 호족 연합체제로, 중국의 읍제국가인 상, 주와 같이 일종의 연합 리더만 존재할 뿐 전국을 다스리는 실권을 가진 왕 같은 존재는 없었다. 그러나 이후 기존의 호족 세력들을 제압한 게이타이 천황이 즉위하면서 본격적인 야마토 왕조가 등장한다. 이 시점부터 일본이 연합국가에서 고대왕국으로 발전해간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대왕이 기거하는 궁의 조영 장소를 아스카 지역 내로 한정하여 제대로 된 수도를 조성해갔다. 둘째, 제도에 의한 지배체제를 구축했다. 즉 법치가 시작된 것이다. 셋째, 6세기 말 백제로부터 불교를 수용했다. 초창기에는 지배층의 종교로 수용했고 지배층 개개의 씨족 차원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씨족 불교’라 불렸다. 이후 천황의 주도로 호족들에게 보급되어 불교 사원이 일족의 위세를 과시할 수 있는 중요한 상징물로 이용되었다. 넷째, 불교 수용 과정에서 조형 미술, 건축술 등이 함께 전래되어 일본의 문화 수준이 전체적으로 향상되었다.

7세기에는 수, 당의 건국과 세력 확대 등으로 인해 동아시아 역사상 전례 없는 대규모 전란의 시대가 펼쳐졌다. 일본에서는 야마토 정권 때 권력을 가지게 된 ‘소가 씨’가 권력을 계속 확대해나가 거의 집권하기에 이르렀지만, 645년 을사의 변으로 인해 소가 씨가 타도되고 고토쿠 천황이 즉위하였다. 그는 다이카 개신을 통해 국정을 쇄신했으며 친당과 친신라 노선을 추구했다. 그러나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660년 발생한 백제 부흥 운동은 일본을 국가적 위기로 몰았다. 백제와 일본 연합군이 나당연합군에 진 것이다. 모순적이게도,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은 또다시 일본을 고대왕국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의 천황은 지배체제를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들였는데, 강력한 군주 권력의 확립을 토대로 위기 관리와 체제 정비에 착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왕권의 강화는 국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다. 또한 일본은 신라와의 관계를 일부 회복하여 율령 지식 등 각종 제도 정비에 필요한 지식들을 전수받았다.

따라서 일본은 야요이시대에 벼농사, 청동기, 철기가 한꺼번에 유입되면서 3세기부터 국가가 성립되었으며, 5세기를 기점으로 연합국가에서 고대왕국으로의 도약이 이루어진다. 그 이후에는 중국과 한반도의 영향으로 불교를 수용했으며 중앙집권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계속해서 이루어졌다.